

이흥재의 세상만사



“여행 생각에 심호흡으로도 심장의 떨림이 진정되지 않는다면 당신은 여행을 짝사랑하는 것이고, 여행 중에 여행을 그리워한다면 이미 여행과 사랑을 하고 있는 것이며, 여행에서 막 돌아왔을 때 바로 다음 여행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여행에 중독된 것이다.”

호텔에 짐을 막 풀고 나오니 ‘릭사’(좌석이 딸린 3륜차량) 한 대가 대기하고 있다. 운전기사도 곧바로 흥정을 시작한다. 시내 한 바퀴 돌고 오는 데 얼마나 받을 거요? 왕복 200루피, 오케이. 오, 싸다. 200루피면 우리 돈으로 불과 3000원 정도.

이것저것 사야 하는데 가는 곳마다 기다려 줄 수 있겠소? 오케이. 운전기사는 다행히 영어 소통이 가능했다. 마이네임 이스 아사. 핫스 유어 네임? 이름이 아싸라 했던가 아사라 했던가. 기침을 툭툭툭 해대기는 했지만 까부잡잡한 얼굴의 그는 참 친절했다.

우리는 낯선 이국에서 그를 마치 자가용 기사나

되는 것처럼 부리며 여유 있는 저녁 소풍을 즐길 수 있었다. 아마도 큰 행운이었을 것이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영업용 택시 기사를 불러 그렇게 한 시간 이상이나 이용했다면 몇만 원도 더 지불해야 했을 테니까.

더군다나 우리 둘은 바로 전날 다른 리사를 이용했다가 바가지지를 쓴 적이 있었으니. 그날 또한 저녁 무렵 시내 구경이나 하자며 걸어서 나갔던 터였다. 하지만 걸어서 돌아오기엔 무리인 듯싶어 리사를 타기로 한 것인데 이 친구는 호텔까지 10분도 안 되는 거리를 빙빙 돌더니 150루피를 요구하는 것이었다.

명상의 나라 여기는 인도 땅

애초 ‘흥정을 확실하게 해 놓은 뒤 타라’는 여행 정보를 알고 가기는 했다. 한데 영어를 모르는 것인지 모른 채하는 것인지 현지 말로 쉼쉼하하 하는 통에, 어떻게 되려니 안이하게 생각했던 것이 화근이었다. 한번 승차를 하고 나니 그는 돌변해서 호텔 이름을 대도 모르쇠로 나왔다.

길거리의 사람들에게 물어 물어 겨우 호텔까지 돌아오긴 했지만 어이가 없었다. 할 수 없지 뭐. 우리나라 또한 그랬던 시절이 있었지 않은가. 후진국에 가면 바가지지를 쓸 각오는 당연히 해야 하지. (바가지라고 해 봐야 우리 돈으로 3천 원도 못 되

는 돈이지만)

여기는 인도 땅. 그래도 많은 여행자들이 한 번쯤 가 보고 싶어 하는 명상의 나라. “인도에 가 보지 않은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가 본 사람은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사람들을 사로잡는 매력 있는 나라. 그레 나이 지극한 사람이란 현인이 아닌 부른 ‘인도의 향불’을 떠올릴지도 모르겠다. “공작새 날개를 휘감는 연꽃소리/ 간지스강 푸른 물에 잠겨라/ 무릎 꿇고 하늘에 두 손 비는 인디아 처녀/ 파고다의 사랑이나 향불의 노래나/ 아~ 아, 깊어가는 인도의 밤이여”

인도의 교통수단은 다양했다. 앞서 우리 둘이서 함께 탄 것이 바로 오토바이를 개조해 만든 ‘오토 리사’였다. 자전거 뒤에 좌석을 만들어 페달을 돌리는 리사가 있는가 하면 아직도 말이 끄는 마차도 있다. 길거리에 나가 보면 대부분 에어컨도 없는 낡은 버스가 굴러다니는데, 심지어 6·25 당시 피란 열차처럼 승객들이 버스 지붕 위까지 올라타고 가는 모습도 종종 눈에 띈다.

40도 가까운 폭염 속에서 하루에 네댓 시간씩 걸고, 또 네댓 시간씩 버스를 타야 하는 고난의 여행길. 그래도 뭐 사서 하는 고생이니 불만이 있을 수 없다. 더욱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물이라는 ‘타지마할’ 한 군데 보 것만으로도 분전은 빼고 남을 것이다.

듣던 대로 인도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유적이지

아, 2007년 새로운 세계 7대 불가사의(不可思議)로 뽑힌 타지마할은 장관이었다. 파란 하늘에 빛나는 돛의 우아한 곡선미와 정원을 전경으로 완벽한 대칭미가 경탄을 자아낸다. 게다가 건물에 지어진 내력이 담긴 흥미로운 스토리까지 있으니 그토록 수많은 관광객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몰려오는 것 아니겠는가.

왕비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아무나’ 강변에 세워진 타지마할은 인간이 거기서 살기 위한 건물이 아니요 신에게 제사 지내기 위한 건물도 아니다. 단지 죽은 자를 위해 지어진 대건축물인데 주인공은 영국의 식민지가 되기 직전까지 인도를 지배했던 무굴제국의 5대 황제 ‘샤 자한’이다.

샤 자한은 열네 번째 아이를 낳다가 죽은 그의 세 번째 부인을 위해 세계에서 가장 호화스러운 무덤이라는 타지마할을 건설했다. 무덤 건설에 걸린 기간은 22년이나 됐으며 요즘 돈으로 계산하면 1조 원의 공사비가 들어갔다고 한다. 하지만 샤 자한은 타지마할이 완공된 이후 아들에 의해 폐위되어 이곳에서 2.5킬로미터 떨어진 아그라 성(城)에 유배(幽閉)되었으니, 말년에 성(城) 한쪽 발코니에서 서서 사랑했던 왕비가 묻힌 타지마할을 바라보는 심정이 얼마나 허허롭고 처연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타지마할을 돌아 나와 아그라 성으로 향한다. 아그라 성은 무굴의 3대 황제인 악바르에 의해 건설됐는데 애초에는 군사 요새로서의 성격이 강했다고 한다. 하지만 건축광으로까지 불렸던 샤 자한이 황제가 된 이후 자신의 재능을 살려 아그라 성을 세계에서 제일가는 궁전으로 변모시켰다는 것이다.

인도는 우리의 60년대 풍경을 연상시키는 후진국이지만 볼거리는 차고 넘쳤다. 하지만 여기에서 꿀을 수확에 없다. 비록 주마간산(走馬看山)이었지만 보고 들은 모든 것을 어찌 다 지면에 옮길 수 있겠는가. 다만 한 가지 갠지스강을 보고 오지 못한 것은 두고두고 아쉬움으로 남는다.

그레도 ‘앞으로 언제 또 인도 땅을 밟을 기회가 있을 것인가’ 생각하면 애초 망설이지 않고 떠나서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그레 “가슴 떨릴 때 떠나라. 다리 떨릴 때는 이미 늦다”라는 말도 있지 않던가. 옮겨니, 늙어지면 못 노하니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뭐가 잘못됐던 것인지 돌아오는 비행기 속에서 내내 북풍이 시달리긴 했지만, 그레도 다리가 떨리기 전에 다녀오기로 한 것은 아무래도 잘한 결정이었던 것 같다. 인도의 어느 후진 호텔에서 침대 밑에 갑자기 나타난 도마뱀을 보고 기겁했던 일 또한 세월이 흐르면 잊지 못할 즐거운 추억이 되겠다. 고맙구나, 아들이. (주필)

경찰 총경 이상 40% 영남 편중

김영진 의원 분석 자료
대구·경북 135명 등 262명
호남 출신 22.8% 그쳐
5년간 승진자도 영남 37.2%



위안부 피해자 함께해요 광주여성재단은 11일 재단 강의실에서 ‘위안부 피해자! 우리가 이제 함께해요’라는 주제의 2016년 현안 워크숍을 열었다. /최현배기자 choi@

총경 이상 경찰 간부의 40%와 최근 승진자 37%가 영남 출신으로 드러나 경찰 인사에 지역편중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경기 수원시 병)은 11일 경찰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경찰 총경 이상 간부 651명의 출신고교 소재지를 전수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총경 이상 간부 중 대구·경북 출신은 135명으로 전체의 20.7%였고, 부산·울산·경남이 127명으로 19.5%를 차지해 영남지역 출신 간부가 전체의 40.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광주·전남 출신은 102명(15.7%), 전북 출신은 46명(7.1%)로 호남 출신 총경 이상 간부는 22.8%로 영남 출신의 절반에 불과했다.

계급별로 ▲치안정감 38명 중 영남 출신

은 15명, 호남 출신은 7명 ▲치안감 57명 중 영남 출신은 21명, 호남 출신은 10명 ▲경무관 126명 중 영남 출신은 50명, 호남 출신은 19명이었다. 또 최근 5년간 총경 이상 승진자 684명의 출신지역도 부산·울산·경남이 127명(18.6%), 대구·경북이 126명(18.6%)로 1위, 2위를 차지하며 영남지역 승진자 비율이 37.2%나 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인구비율로 보면 대구·경북이 10%, 부산·울산·경남이 15.6%로 영남지역이 25.6%를 구성하는 것과 대비된다”며 “지역 편중인사 논란을 일으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14만 경찰조직이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조직운영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중립성이 가장 중요하다”며 “특정 지역으로 편중된 인사가 있었다면 탕평인사를 통해 특정지역 인사편중을 시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정유정 베스트셀러 ‘종의 기원’ 영화로 제작

2018년 개봉... 해외 출판사 판권 계약 요청도 잇따라

함평 출신 소설가 정유정의 신작 ‘종의 기원’이 영화화된다. 출판사 은행나무는 최근 영화제작사 부천만화홀딩스(대표 박준희)와 영화화 판권 계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영화는 오는 2018년 개봉을 목표로 제작이 추진된다.

정 작가는 영화사로부터 최고 수준의 원자료와 러닝캐런티(홍행수익에 따른 성과금)를 받기로 했다. 소설 ‘종의 기원’은 사이코패스 인물을 둘러싼 이야기로, 지난 5월 출간되자마자 베스트셀러에 진입했다. 최근 판매고 17만 부를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작가는 “악인의 자기 변호사이지만 악의 미화는 아니며, 악이 어떻게 존재하고 점화되는가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해외 출판사들의 판권 계약 요청도 잇따라 최근 프랑스 피카에 출판사와 판권 계약을 체결했다고 은행나무는 전했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北 동해 NLL 조업권도 중국에 팔아

정보당국 “年 820억 판매대금 김정은 통치자금 유입”

북한이 서해에 이어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의 조업권도 중국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간 820억 원에 달하는 동·서해 조업권 판매대금은 모두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통치자금으로 유입되고 있다고 정보당국은 분석했다. 정부 및 정보당국의 소식통은 11일 “북한이 서해에 이어 동해 조업권도 중국에 팔아 외화벌이에 나서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최근 동해 북방한계선

(NLL) 북쪽 해상의 조업권을 판매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소식통은 “북한은 중계무역회사를 통해 중국 어선이 한반도 동·서해에서 조업할 수 있는 권한을 판매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는 북한 당국이 직접 조업권 판매를 맡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는 “북한과 중국은 지난 2004년 동해 공동어로협약을 체결해 중국 어선의 조업을 허락했지만, 이 협약은 NLL 인근까지는 조업구역이 아닌 것으로 안다”

면서 “지금까지 이 협약이 유지되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최근에 동해 NLL 근처에서 중국 어선 900~1000척이 조업하는 것이 식별되어 분석한 결과, 북한으로부터 조업권을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동해 NLL 일대에 중국 어선이 활동 중”이라며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유관기관과 (조업권 판매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동·서해 조업권 판매계약으로 조업에 나서는 중국 어선은 2500여 척에 이른다. 이들 어선의 조업 대가는 7500만 달러(한화 820억 원)로 추산됐다고 소식통은 설명했다. /연합뉴스

교육부 고시 제2016-248호

『전남대학교 생활관 신축 임대형 민자사업(BTL)』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 『전남대학교 생활관 신축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12일
교육부장관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 사업명: 전남대학교 생활관 신축 임대형 민자사업(BTL)
- 사업위치 및 규모

구분	예정지	부지면적 (㎡)	연면적 (㎡)	수용인원 (명)	비고
전남대학교	전라남도 화순군-읍 일심리 178-3번지 외 29필지	118,970	8,300㎡ 이상	350이상	

- 사업에 필요한 비용 및 공사기간

구분	사업내용	총사업비 (백만원)	운영비 (백만원)	공사기간	학공 예정일	준공 예정일
전남대학교	연면적 8,300㎡ 이상 수용인원 350명 이상	12,497	3,690	450일	2017.10	2018.12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 사업신청자의 자격
 -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5%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여야 함
- 사업추진 방법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에 의거 임대형 민자사업(BTL)방식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 정부지급금의 상환 및 지급
 -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구성되고,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자가 투자한 민간투자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년 분할하여 지급하는 구조로 산정하며, 운영비용은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보수, 개발, 수선비용 등을 합산한 비용으로 산정함
- 사업신청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기술점수 510점(사업관리계획 20점, 설계계획 190점, 건설계획 120점, 운영계획 180점), 재무수준평가 490점(공익성 50점, 가려부은 440점)으로 평가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후 협상에 의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 추진일정
 - 사업설명회
 - 일 시: 2016. 8. 18(목) 14:00
 - 장 소: 전남대학교 대학본부 1층 세미나실
 - 질의 및 답변
 - 1차 질의 마감: 2016. 8. 25(목) 17시까지
 - 1차 질의 답변: 2016. 9. 5(월)
 - 2차 질의 마감: 2016. 9. 19(월) 17시까지
 - 2차 질의 답변: 2016. 9. 29(목)
 - 사전적격(PO)심사 서류 제출 및 접수
 - 일 시: 2016. 9. 19(월) 13:00 - 17:00
 - 접수처: 전남대학교 대학본부 시설과
 - ※ 우편에 의한 서류 제출은 접수하지 않음
 - 사업계획서 제출 및 접수
 - 일 시: 2016. 11. 8(화) 13:00 - 17:00
 - 접수처: 전남대학교 대학본부 시설과
 - ※ 우편에 의한 서류 제출은 접수하지 않음
-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 이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 내용은 전남대학교 홈페이지를 참고 바라며, 사업담당자(전남대학교 시설과 박성영 주무관, ☎062-530-1228)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년 전통 (주)호남경매

법원경매 이달의 추천물건

- ★ 금매 하남 3지구 상업지역 대지 132평 8차선대로변 전면널음 상권최상 프랜차이즈상당 ▶ 거래가 18억원
- 남구 월산동 원룸3층건물133평 대지74평 방18개 코너위치 건축2003년도 환경양호 ▶ 감정이 4억6천 최저가 3억2천만원
- 담양군 담양읍 5층숙박시설 450평 객실28개 토지40평 투자가치우수 ▶ 감정이 10억원 최저가 4억5천(감정가 45%)
- 광산구 신창동 신축3층원룸건물108평 대지70평 방11개 수문초신상중인근 위치 및 건물최상 ▶ 최저가 3억2천5백만원
- 북구 중흥동 광주역 8차선대로변 상가 2층건물 136평 토지 222평 준주거지역 ▶ 감정이 11억9천 최저가 8억3천

상가, 토지, 병원, 사옥, 창고부지 매매상당

- 담양읍 학동리 메타페어아파트에서 순창방향 계획관리지역 건물974평 토지 25,392평 ▶ 감정이 74억 최저가 34억원
- 담양군 월산동 2층전원주택 건물82평 토지211평 주변환경 광주에서 30분거리 ▶ 감정이 5억3천 최저가 2억4천(45%가액)
- 장성군 북하면 백양사 주차장인근 근리시설2층 건물253평 토지280평 계획관리지역 ▶ 감정이 8억 최저가 4억4천만원
- 영암군 시흥동 근린시설 3층건물306평 대지209평 주차장있음 면사무소인근 계획관리지역 ▶ 감정이 8억9천 최저가 3억2천만원

(주)호남경매 김용희 이사
010-7147-4989

NPL 투자비법과 경매 (수강생 선착순 모집)

‘저금리 시대’ 투자대안, NPL실전투자비법 명쾌한 이론 + 실전사례 중심 강의 + NPL물건추천

주식투자에 연연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경매를 하고 있습니까? 제로금리시대, 불안하나요? 퇴직이후가 걱정되나요? 노후대책이 없나요? 이 시대 최고의 재테크!! 자본 없이도 재테크 가능!!

교육특징

- 돈받고 세금까지 절세하는 NPL투자 7가지 핵심 수익극대화 비법!
- NPL 추천물건 위주, 실전사례 중심 강의! NPL고수가 되는 절호의 기회!
- 자본없이도 공평을 소유할수 있는 절호의 기회!

2016년도 2학기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 모집기간: 2016. 7. 18(월) ~ 2016. 9. 9(금)
- 수업기간: 2016. 9. 8 ~ 2016. 12. 8
- 매주 목요일 주간 10:00~12:00 야간 19:00~21:00
- 수강료: 18만원 (예금주: 조선대학교) 광주은행 004-107-000152
- 신청방법: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http://chosun.ac.kr/lifelong
- 접수문의: 0621230-7700~2 지도교수: 송용욱 010-9416-1200